

일본어에서 모호한 표현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쓰임

정 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곧 사람이다. 사람의 사상감정과 기호와 취미는 모두 말을 통하여 표현되며 그의 직업과 지식정도, 문화도덕수준도 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김정일전집》 제20권 131페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준비정도, 사고방식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일본어에서는 일본인들의 민족심리의 영향과 함께 이러저러한 언어적요인으로 하여 모호한 표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그런데 모호한 표현은 사람들사이의 교제와 리해에서의 혼동과 탈선을 일으키는 반면에 언어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일본어의 모호성문제는 교제상 오해를 막기 위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측면과 그것을 여러가지 목적에 맞게 리용하는 측면 등 서로 대치되는 두 측면을 가진다.

일본어로 글을 쓰거나 일조-조일번역에서 오해나 혼동이 없도록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 일본어의 모호성을 극복하는 측면으로 된다면 일본어모호성을 여러가지 목적에 맞게 리용하는것이 일본어특유의 모호성이 나타내는 표현적성격을 살려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된다.

론문에서는 일본어모호성의 표현적성격을 살려서 활용하는 측면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일본어에서 모호한 표현은 긍정적 및 부정적성격을 띠고 각이한 측면에서 쓰일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일본어에서 모호한 표현은 긍정적성격을 띠고 각이한 측면에서 쓰일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많은 경우에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쉽게 리해하도록 명확한 표현형식을 취하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모호한 표현형식을 취하여 교제활동을 재치있게 진행하기도 한다. 이때 쓰이는 모호한 표현들은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으로는 대신할수 없는 표현적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우선 어떤 사물현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에둘러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언어의 문화성을 보장하고 부드러운감을 준다.

일본어에서는 웃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높임의 말차림으로 표현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정중성의 표현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여러가지 모호한 표현형식으로 대치할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형식들은 언어표현의 문화성을 보장하여준다. 예를 들어 웃사람에게 어디로 갈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형식들을 취할수 있다.

一緒に行くのがいいだろうと思いますが… (함께 가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ご一緒、いかがでしょう。(함께 가시는것이 어떻습니까.)

위의 형식(이밖에도 여러가지 형식들로 표현할수 있을것이다.)들은 일반적으로 《一緒に

に行きましょう。(함께 갑시다.))와 같이 직선적인 권유보다 더 문화성있고 공손한 인상을 느끼게 한다.

웃사람과 이야기하는 경우 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자기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명령, 권유 등을 나타내는 형식 또는 명확하고 결론적인 표현 등을 될수록 피하고 추측, 의문, 가능성 등의 모호한 형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보다 레절바르고 부드러운감을 나타낸다.

레: ぼつぼつ始めよう。(슬슬 시작하자.)

레문의 의미를 따져보면 빨리 시작하자는 의미로도 쓰일수 있고 천천히 시작하자는 의미로도 쓰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이 문장은 모호한 문장으로 된다. 그러나 역시 딱딱한 감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레: あそこで、コーヒーでもいかがですか。

(저기서 커피라도 하는게 어떤지요.)

そうでしょうね。(글쎄요.)

레문에서는 커피를 마시자고 강요하는 식이 아니라 모호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부추기였다. 대답하는 사람도 모호한 대답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의 감정을 나타내고있다. 역시 명백한 말보다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남기는 표현이다.

또한 정치 및 경제외교에서 상대방과의 마찰을 피하고 자기의 의도를 실현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외교일군들인 경우 상대방에게 자기의 견해나 의견을 강요한다든가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박하는 식으로 외교활동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때로는 풀기 어려운 불신임과 오해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외교일군이라면 상대방의 제의나 견해에 동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직선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할것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에둘러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줄 알아야 호상 마찰을 피할수 있고 쉽게 자기의 의도를 실현할수 있다.

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있을 때 《それは違います。》(그것은 틀립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것보다는 《それはそうですが、私はこうしたほうがいいたろうと思われるんですが…。(그건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 좋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と言えないこともないんですね。(…라고 말 못할것도 없습니다.))》와 같이 모호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여야 언어의 문화성을 보장하면서도 마찰이 없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할수 있다.

또한 신중성을 나타낸다.

객관적사물에 대한 인간의 정확한 인식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수 없으며 설사 어떠한 인식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이러저러한 제한으로 하여 완전무결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거나 어떤 학술적주장을 세울 때에도 흔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호한 표현이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신중함을 나타내게 된다.

학술논문에서는 흔히 《一般的に言いまして》(일반적으로 말하여), 《だいたい》(대체로), 《…と言っていていいでしょう。》(…이라고 해도 될것입니다.), 《…かも知れません。》(…일지도

모릅니다.) 등의 형식들이 많이 쓰이고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모호한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면서 때로는 명백하고 직선적인 표현으로는 대신할수 없는 표현적효과들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본어학습자들은 모호한 표현이 나타내는 표현적효과들에 대하여 잘 알고 문체론적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써먹을줄 알아야 한다. 특히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때 상대방의 의사도 존중한다는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모호한 레의표현들을 잘 알아야 높은 수준에서 일본어를 소유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어에서 모호한 표현은 부정적성격을 띠고 각이한 측면에서 쓰일수 있다.

우선 과학기술논문이나 업무보고서 등에서 객관성, 공정성을 표방하면서 책임회피에 이용된다.

《…と思われる(…라고 생각되다)》, 《…と考えられる(…라고 분석되다)》, 《…と見られる(…라고 보아지다)》, 《…ととれる(…라고 해석되다)》, 《…といわれる(…라고 하다)》, 《…が期待される(…이 기대되다)》와 같은 표현들은 과학기술논문이나 공식문서 등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거나 회피할 때 쓰이는것들로서 자주 맞다들게 된다. 이런 표현들과 맞다들면 읽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누구이며 이러한 자료들을 믿어야 하겠는지 의심을 품게 된다.

과학기술문체나 신문보도문체 등에서 필자의 생각이라면 《私は…と思う》, 《私は…と考える》라고 명백히 해야 하겠지만 《…と思われる(…라고 생각되다)》, 《…と考えられる(…라고 분석되다)》, 《…と見られる(…라고 보아지다)》 등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호한 표현을 쓰게 되는것은 명백한 말을 꺼리는 일본인들의 언어심리적인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성여부가 의심스럽거나 자신심이 없는데서부터 나온것이다.

례: 組織の整理を行い、設備事故や業務プロセス上の不具合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の施策を講じ、工事の品質を高めていくことが優先課題であると思われる。(조직을 정리하여 설비사고나 업무과정상의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의 질을 높여나가는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장에서는 필자가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부정적결과로 초래할수 있는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간파할수 있다.

또한 이른바 학술적인 깊이, 말과 글의 심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비비꼬아서 사물현상의 본질을 파악할수 없게 한다. (이것은 부르쥬아학자들의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접속조사 《が》의 쓰임이다.

접속조사 《が》는 대부분 문장의 앞부분과 뒤부분의 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는 모호성을 내포한다.

례1: 介入性画像診断法はInterventional radiologyの翻訳であるが、大方にはその原語とともにいまだ耳新しい。本邦ではインターベンショナルラジオロジーと片仮名を用いている稿も見られるが、少々長く、第一何も意味を表さない。

(개입성화상진단법은 Interventional radiology를 번역한것인데 [번역한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원어와 함께 아직은 귀에 선 어휘이다. 일본에서는 인터벤쇼날라지오로지라고 가다까나로 쓰고있는 원고도 보게 되는데 [되지만] 좀 길다랗

고 무엇보다 아무 뜻도 나타내고있지 않다.)

여기서 조사 《が》에 의하여 앞뒤문장은 동일한 관계로도 접속되고 반대되는 관계로도 말이 통하게 되어있다.

례2: エルマンケ山が、3千4百フィートの雲間に高くそびえているが、絶頂に立つてみると、ふもとまで密林で、まるで絵に見るような壮観であった。

(엘만케산이 3 400ft의 구름속에 높이 솟아있는데 절정에 서서 보니 산기슭까지 밀림이어서 마치 그림에서 보는듯 한 장관이었다.)

례1에서 조사 《が》를 없애고 문장을 이어주면 의미는 명백해진다.

례1: 介入性画像診断法はInterventional radiologyの翻訳で、大方にはその原語とともにいまだ耳新しい。本邦ではインターベンショナルラジオロジーと片仮名を用いている稿も見られる。これは少々長く、第一何も意味を表さない。

(개입성화상진단법은 Interventional radiology를 번역한것인데 일반적으로 그 원어와 함께 아직은 귀에 선 어휘이다. 일본에서는 인터벤쇼날 라지오로지라고 가다가나를 쓰고있는 원고도 보게 된다. 이것은 좀 길다랗고 도대체 아무런 뜻도 나타내고있지 않다.)

이렇게 접속조사 《が》는 대부분 문장의 앞부분과 뒤부분의 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는 모호성을 내포하고있는데 과학기술논문 특히 특허문헌같은데서 접속조사 《が》에 의한 모호한 문장들을 볼수 있다. 이것은 수준문제보다도 필자의 의도적인 속타산이 내재되어있음을 간파해야 할것이다.

또한 각종 회담, 면담들에서 교묘하게 모호한 표현을 리용하여 상대방이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한다.

단적인 실례로 《その件は充分検討する余地があると思います。(그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貴社の提案は弊社にも利益を与えるだろうと思います。(귀사의 제안은 우리에게도 이익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非常に立派な提案だと思します。(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과 같은 말들은 외교적걸치레에 불과한 애매한 대답으로 보아야지 지지하는 립장인것으로 포착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수 있다.

례: …と、こういうようにしてはどうですか。

(…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가요?)

そうですね、貴社側の～についてのご提案も考えておきます。

(글쎄요. 귀사의 …에 대한 제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례문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을 지지한다든가 반대한다는 명백한 대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고있다. 즉 《考えておきます。》는 상대의 제안을 집행할수도 있고 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모호한 대답으로 된다.

다른 실례로 전날에 단고기국집에 가서 식사한 인상에 대해 말하면서 《いやあ、きのうはあまり感激して、涙が出ちゃった。(참, 어제는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라고 표현했다면 실지로 감격해하는 례의표현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어제 너무 매워서 단고기국집에는 다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예둘러 말한것으로 판단하고 구태여 다시 데려가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진행되는 발언들은 정확하고 명백한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되어야 회담쌍방의 호상제안과 합의문들이 정확히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종종 이런 공식석상이나 공문서 같은데서도 모호한 표현을 써서 자기의 속심을 숨기면서 리속을 채우려 하고있다.

실례로 언제인가 있는 일본고위인물의 미국방문시에 있었던 일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비공식적인 분위기속에서 일본이 섬유제품의 대미수출을 자체로 규제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고위인물은 《善処いたします。(잘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미국측에서는 이 말을 수락의 표시로 생각하고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측이 말한 《善処します。》라는 말은 일본인들이 대체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쓰는 모호한 표현으로서 집행여부에 대한 담보가 없는 말이다. 이것으로 하여 이후 일본의 섬유수출문제는 미일사이의 격렬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다른 실례로는 일본의 한 정치가의 발언을 들 수 있다. 그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본이 지난 시기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사죄하고 배상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바빠맞아 국회연설에서 《過去日本が犯した40年間の朝鮮侵略に対して痛惜の念に堪えません。(과거 일본이 저지른 40년간의 조선침략에 대하여 애석함을 금할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사죄하는듯 한 말같지만 여기서 《痛惜の念に堪えません。》이라는 말은 놓치기 아까운 대상을 잃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일을 더 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움을 금할수 없다.》로 쓰이는 말로서 전체적인 문장의미는 매우 모호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발언은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어에서 모호한 표현들은 구체적인 언어정황속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목적에 리용되면서 자기의 독특한 교제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우리는 모호한 표현들을 비롯하여 일본어에 특이한 언어적현상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교수사업에 적극 구현하여 학생들의 일본어실천능력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일본어, 모호한 표현